



## 신심깊은 '불교의 섬' ... 해안따라 절이어라

### 북제주

인구 55만의 제주도는 인구의 60~70%가 불자라고 얘기될 정도로 불심이 강한 지역이다. 사찰 수가 250여개나 되는 것만 보아도 제주도가 '불교의 섬'임을 알 수 있다. 돌과 바림과 여자가 많다고 해서 제주도를 '삼다도(四多島)'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그 위쪽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포함한 '북제주', 그 아래쪽은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포함한 '남제주'로 나뉜다.

그러나 불교와 관련지어 두 지역을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제주시가 제주도의 중심이므로 북제주 불교가 남제주 불교에 비해 다소 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지역을 구분짓는 뚜렷한 특징은 없다.

제주불교는 다른 지역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들 특징은 제주불교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복불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주의 기복불교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복을 비는 차원'의 기복불교가 아니다. 제주 불교의 기복적 성향에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

농사가 부적합한 땅에서 살아온 제주인들은 주로 해상생활에 의존해왔고, 결국 안전을 기원하는 각종 제사와 굿이 생활화했다. 그런 가운데 제주에 들어온

불교는 토속신앙과 결합하며 기복적 성향을 띠게 된다. 해안을 따라 절들이 위치해 있는 이유도 마을마다 한 두 개의 사찰이 자리 잡으면서 '마을의 종가집'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용왕제 등 토속신앙형태의 '제'를 지내는 사찰이 적지 않다. 제주가 불교의 섬이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태고종세가 조계종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제주도의 태고종 사찰은 모두 80여 곳으로 조계종보다 20여 곳이 많다. 그리고 태고종 제주교구는 전국 교구 가운데 최고의 응징력과 추진력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부분의 사찰들은 정기법회 외에는 별다른 행사를 열지 않는다. 신도들이 절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이다.

사찰과 단체들의 활동도 다른 지역에 비해 왕성한 편이다. 우선 북제주만 놓고 보면 관음사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관음사는 제주불교문화대학과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등을 통해 신도교육과 불교복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종 신행단체 활동도 활발하다.

원명선원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참선전문과정과 참선대학, 단식요법을 응용한 참선수련 등 다양한 형

### 합창단 중심으로 신행·자원봉사 활성화 원명선원 등 다양한 참선프로그램 운영

을 자랑한다. 제주교구는 제주시내에 불교회관을 세워 다양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합창단이 많다는 점도 눈에 띈다. 태고종 제주교구 연합합창단과 서귀포불교연합합창단을 비롯해 금봉사, 선광사, 흥봉사 등 모두 20여개나 된다. 사찰 신도조직이 활성화돼 있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합창단을 통한 신행과 자원봉사 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감귤농사에 사찰경제와 활동이 일정부분 좌우되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감귤농사가 잘 되지 않는 해에는 사찰 경제도 어려움을 겪는다. 또 감귤농사철인

태의 참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선수행 보급에 나섰으며, 최근에는 천왕사가 시민선방을 개설해 수행 문화 확산에 가세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은 초·중고·청년·성인으로 이어지는 신행체계를 갖추고 제주 신행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오라선원은 다도 서예 요가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또 우리절은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법회를 통해 새싹 교포에 주력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원명선원과 해봉사, 국정사는 불교유치원으로 어린이 포교



제주불교 특징 중 하나는 사찰 합창단이 많다는 점이다. 20여 합창단은 음성공양 외에 자원봉사 등 활발한 신행으로 제주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말 열린 우당바라어린이합창단 공연 모습.

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태고종 제주교구총무원의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태고종 불교회관에서 제주불교대학을 열고 신도 교육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제주교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제주태고원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복지활동에 뛰어들었으며, 금

봉사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주력하면서 제주 불교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천왕사와 흥봉사는 기도도량으로, 고관사는 평화통일불사리탑으로, 흥훈각은 호국영령 도량으로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지역불교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 지역불교 위상높인 일등공신

중원 스님 (제주시 관음사 회주)

제주 스님들은 "오늘날 제주불교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은 중원 스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그만큼 중원 스님이 제주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관음사 회주로서 불교권익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제주불교문화대학과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을 통해 신도교육과 복지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제주불교 발전은 물론이고 제주 전통문화 관광 자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의 관음사 성역화 불사를 전개하고 있다.

#### 40년간 전통장병 위령제 지내

설봉 스님 (제주시 흥촌각 주지)

태고종 원로의원이자 대종사인 제주교구의 어른. 40년 간 제주교구와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진력해 온 제주불교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단 하루도 조계종을 빠뜨리지 않는 '스님다운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통장병의 유골을 모시기 위해 지어진 흥촌각에서 1966년부터 해마다 전통장병을 위한 위령제

와 유주무주 고향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면서 종효사상 고취에도 앞장섰다.

#### 경찰·교도소 재소자 포교 힘써

종호 스님 (제주시 제석사 주지)

종호 스님은 제주불교의 기틀을 다진 지역의 '어른'이다. 제주불교총연합회장과 제주지방경찰청 경승실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제주 불교를 이끌었다. 특히 경찰과 교도소 포교에 매진하면서 불교의 이미지를 높였다. 이곳 전경부대 출신이고 종호 스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종호 스님의 방문 포교는 유명하다. 또 청송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소자 포교에도 노력을 쏟았다. 현재 제주불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 선바람 일으킨 새싹포교 선구자

대효 스님 (제주시 원명선원 선원장)

대효 스님은 30년 동안 한결 같이 제주 불자들에게 선수행을 지도해오면서 제주불교에 '선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초심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지도함으로써 선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선을 접목한 생활법문을 통

해 불교 생활화에도 앞장섰다.

스님은 제주 어린이 포교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1977년부터 어린이법회를 열고 1982년에는 원명유치원을 개설해 어린이 포교에 뛰어들었다.

현재 제주종교인협회 공동대표를 맡아 종교 화합에도 나서고 있다.

#### 학자로 명망...문화포교 개척

수암 스님 (북제주군 금봉사 주지)

남제주 선광사 주지 수암 스님과 함께 태고종 제주교구의 핵심인재로 꼽히는 스님. 1999년부터 제주대학교에서 인도철학과 불교철학 등을, 태고종 동방대학에서는 경전을 강의하는 학자로 지역 스님들로부터 신망이 두둑하다. 지난 11월에는 금봉사 합창단 연주회 및 연꽃사진전을 여는 등 문화포교에 관심이 많다.

금봉사에 온 이래 40년 동안 북제주군 하도리 마을 주민들과 한 식구처럼 살면서 불심을 심었다.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 태고종 제주교구의 동력

지화 스님 (제주시 흥봉사 주지)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제주태고원 사무국장, 태고종 제주교구총무원 재무국장, 제주교구연합합창단 지도법사. 이력에서 보듯이 지화 스님은 태고종 제주교구의 동력이다. 교구발전을 위해서서

면 가까이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 음악, 사진, 서예, 한의학 등 다방면에 재질을 갖춘 팔방미인. 그래서인지 서예, 음악, 다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문화강화를 영어 문화 포교에 나서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 정법 포교로 새 신행모델 제시

혜교 스님 (제주시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장)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이 제주불교에 새로운 신행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런 평가에는 혜교 스님의 끈이 스투머였다. 1992년 제주지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사격을 갖추고 어린이·학생·청년·성인 법회를 이어가는 신행 시스템을 정착 시키면서 정법포교 토대를 구축했다. 지난 11월 광주에서 열린 제22회 전국정신지체인복지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을 만큼 복지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강당을 건립해 각종 수련회를 열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어린이 수련회 상설화

계용 스님 (제주시 오라선원 주지)

제주지역 차인들의 모임인 '제주차인회' 회장.

제주우당바라어린이합창단 단장, 제주지방경찰청 경승, 한길중학교(제주 소년원) 교정위원, 서귀포불교대학 강사, 자원봉사단체 법연회 지도법사...

계용 스님이 하고 있는 일은 너무도 많다. 뿐만 아니라, 서예와 사물놀이, 다도 등에도 관심이 깊다.

어린이 수련 프로그램도 상설화하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보 차원의 불사를 할 계획이다.

#### 지역 어린이 포교 새 장 열어

인성 스님 (제주시 우리절 주지)

인성 스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장 혜교 스님과 함께 제주 어린이 포교의 대명사로 꼽힌다. 18년 전 제주에 온 인성 스님은 줄곧 어린이 포교 외길을 걸으면서 제주 어린이 포교의 새 장을 열었다. 18년 간 매주 단 한 차례도 경전강의를 빠뜨리지 않았을 정도로 신도교육에도 애정을 쏟고 있다. 또 우리절을 지역민들의 휴식처로 가꾸어 친근감 있는 사찰로 만들었다.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대한학교를 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 바로보인의 책들 태원문재현 선사님 역적지 / 시가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태원문재현 선사님 역적지의 무명을 일깨우는 동계한 禪법문!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출간)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경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출간)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영송 (전30권 중 7권 출간)
- 영원한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전10권 중 2권 출간)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2권 출간!>

선(禪)을 수행하는 분들이 기다렸던 선 수행 문답집.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듯 밀밀한 질문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명의 원리까지 온권하게 통달하여 낱말이 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태원문재현 선사님의 반야심경 법회가 있습니다. 선(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법문에서 이 시대의 야부 선사로 불리는 태원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습니다.